



5면

"안전관리 만전"... 김승환 교육감 집중호우 피해 유치원 방문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음 6월 23일) 제25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 지사, 국비 최대 확보 막바지 사력

도 지휘부, 기재부·예결위원장 등 핵심인사 면담 주력산업 체질강화, 새만금·잼버리 등 반영 요청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한 기재부 예산 심의가 막바지인 상황 속에 송하진 지사 등 전북도 지휘부가 정부안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이날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 전 실국장이 기재부를 찾아 예산실장, 국회 예결위원장 등 예산 핵심인사를 방문 면담했다.

전북도 지휘부는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체질강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산업생태계 구축, 여행 체험 1번지, 새만금·잼버리 등 분야별 도정 역점사업이 정부안 예산에 필수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송 지사는 정부 재정의 투자확대가 지역 경제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총괄·사회·경제·복지안전·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만나, 먼저 주력산업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 이후 전북 경제 위기극복과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사업',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생태계구축사업' 등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여행체험1번지 사업은 국내최초의 세계서예대전인 '세계서예비엔날레'의 위상 강화를 계승을 위한 '세계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 전북의 우수한 국학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정리를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용역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잼버리사업은 직접경비 위주로 편성된 세계잼버리 총사업비를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과 프레잼버리 준비 등을 위해 확대, 증액해줄 것을 건의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익산왕궁 정자동원 현업축사매입비' 276억원, '새만금 산단입대용지' 272억원 등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잼버리사업은 직접경비 위주로 편성된 세계잼버리 총사업비를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과 프레잼버리 준비 등을 위해 확대, 증액해줄 것을 건의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익산왕궁 정자동원 현업축사매입비' 276억원, '새만금 산단입대용지' 272억원 등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서 홀로그램 소재부품 국산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 '자동차 튜닝체험 테마파크조성' 등도 역점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예결위원장 면담에 앞서 송 지사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미래통합당 이 달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여가 위원장, 박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사업과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신속 통과 등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용호 의원, 김성주 의원, 정운천 의원 등 지역연고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 쟁점사업에 대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재부 시트가 마감되는 오는 19일까지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휘부, 실국장 등이 국가예산 확보에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국회 단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및 전북출신 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시개회 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 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지휘부가 총 출동해 내년도 정부안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1일 송하진 도지사가 서울에서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난 후 국회를 찾아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주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무더기 적발

에코시티·혁신도시 등... 57명 고발·43명 행정처분

전주시가 최근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 덕진구(구청장 김형조)는 지난 달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한국감정원과 함께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

도시 아파트 3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 매물 중 특별조사가 필요한 거래당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였다.

불법 전매로 의심되는 에코시티의 데시앙과 더샵원차, 혁신도시 대방디엠 시티의 거래당사자와 관계자 7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아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전매제한과 허위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구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고발했다.

또한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최우수' 道,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최우수'

6년 연속... 이용자 모니터링 등 높은 평가

전북도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과 함께 내년도 예산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크게 3가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도의 지역적 특성은 물론 도민의 욕구를 반영해 전북도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자바우처(이용권)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장애인운동재활서비스 등 31개 사업을 400개 제공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

켜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관리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도시·농촌간 공급격차를 완화하고자 사회적 경제조직 대상 창업스쿨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 제공기관을 확대한 점과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증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경진 도 사회복지과장은 "6년 연속 최우수 기관 수상은 도와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군 및 읍·면·동 그리고 제공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업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대상자 43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구는 또 271명의 경우 재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소 불명으로 소명 자료를 미제출한 8명은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송주빌딩5F